

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, 전년대비 약 150% 증가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2. 2. 24.)



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·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-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·미국·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,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시정권고(판매차단·환급·폐기 등)했다.
-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·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, 국내 수입·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·교환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
-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‘음식료품’이 158개(41.4%)로 가장 많았고, ‘아동·유아용품’ 51개(13.4%), ‘가전·전자·통신기기’ 44개(11.5%) 등의 순
- (음식료품) 유해물질 함유(56개, 35.4%)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(41개, 25.9%)
- (아동·유아용품)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영유아·어린이가 삼켜 질식될 위험 사례(28개, 54.9%)가 가장 많았으며, 설계결함(8개) 및 유해물질 검출(7개)로 리콜된 경우가 각각 15.7%, 13.7% 등의 순
 - ‘설계결함’에서는 배터리단자함 고정미흡 및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5개, 길이가 부적절해 질식위험이 있는 치발기, 구멍 크기가 부적합해 손가락 끼임 위험이 있는 유아키보드 등이 있었음.
 - ‘유해물질 검출’에서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*가 과다 검출된 장난감(3개), 니트로사민** 중독 위험이 있는 풍선(1개), 카드뮴 과다 검출된 유아 목걸이(1개) 등이 있었음.
- * DEHP: 폴리염화비닐(PVC) 제조 등에 사용되며, 호흡·섭취·접촉을 통해 몸에 흡수될 경우 생식기능 장애 등 내분비계에 영향
- ** 니트로사민: 육류 가공품, 화장품, 고무제 등에서 검출되며 국제암연구소(IARC)와 미국환경보호청(EPA)에서 발암물질로 분류
- (가전·전자·통신기기) 과열·발화·화상 위험(22개, 50.0%)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(12개, 27.3%)
-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개* 오픈마켓 사업자와 ‘자율 제품안전 협약’을 체결(21.4.)하였으며,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.

* 네이버(주), 십일번가(주), (주)인터파크, 지마켓글로벌, 쿠팡(주)